

## 이전 세미나 참가자들의 의견

"나는 인지학을 체험가능하도록, 그리고 살아있는 것으로 만드는 하프너 선생님의 대단한 능력에 대해 늘 고맙게 여긴다. 젊은 시절에는 큰 질문들이 많은데, 하프너 선생님처럼 명확하고 논리적인 정신과학적 해답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은 드물다. 오리엔테이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지학 기초 과정은 "진정으로 인간적인 삶"을 추구하는 많은 젊은이들에게 큰 선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리사 판 홀스타인(28) - 솔로스 함본의 발도르프 교사

"다니엘 하프너의 입문 세미나는 짧은 시간동안에도 여러 주제들에 접근하는 인지학의 기본관점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했기 때문에 항상 나에게 매우 귀중한 시간이었다. 대부분 압도적인 인지학적 통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철저하게 집중하여 어떻게 다르게 생각하고 현실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지를 간결하게 설명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 분명한 사고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매우 열린 마음과 따뜻한 마음으로 제시되었고, 이를 통해 활동적 인지학의 도덕적 차원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다."

엘리자베스 뤼박(27) - 보벤빌의 사회 삼중 연구 프로그램 학생

"나는 다니엘 하프너가 현대 문화의 영웅이라고 생각하며, 과학, 언어, 수학, 문화사, 예술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로 청년 교육을 이끌기에 이보다 더 적합한 사람은 없다고 생각한다. 하프너 선생은 인지학의 다양한 관점을 매우 유연한 사고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종종 (적어도 내가 보기에는!) 통달한 사람이 줄 수 있는 많은 교훈을 구현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을 인정하면서 청년들과 함께하려는 그의 계획을 지지할 수밖에 없다"

사무엘 A. 피셔, (27세), 영국

"인지학에 대한 하프너 선생님의 포괄적인 지식과 이를 명확하게 설명하는 능력을 높게 평가한다."

오델리아 헤르만(25) - 예나의 심리학 학생

"나는 현재 올덴부르크에서 철학 및 사회학 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있으며, 최근 몇 년간 다니엘 하프너의 세미나에 계속 참석하여 이 학업을 보완하고 풍부하게 하는 특권을 누릴 수 있었다. 하프너 선생님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세심한 주의와 애정을 가지고 주제에 접근하며, 프레젠테이션은 항상 지속적이고 활기찬 개인들의 토론으로 풍부해진다. 그와 함께하면 질문을 통해 자신이 인간으로서 가장 깊고 진지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공부의 강력한 기반이 된다. 모든 세미나는 나에게 완전히 다른 세계에 몰입하는 시간이었고, 이는 종종 내 영혼과 세상과의 정서적 관계를 지속적으로 변화시켰다. 나는 색의 기원이나 인류의 발달과 같이 다른 맥락에서 내가 이미 알고 있던 과학적 영역이 인지학적 사고로 조명될 때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

느슨하고 우연적으로 보였던 사실들 사이에서 새롭게 얻은 내적 연결은 내 영적 삶에 가장 깊은 치유 효과를 가져왔고 세상을 탐구하려는 새로운 불을 지폈다. 이러한 발전을 별도의 세미나들에서 시작하는 것 뿐 아니라 지속적인 학습 과정을 통해 배양하는 것, 청년들이 그렇게 하기를 나는 간절히 바란다.

요제프 슈티글러(27)

„나는 인지학에 관심있는 부모님에게서 성장했지만 그것이 표현되는 내용과 방식에서 늘 어려움을 겪어 왔는데, 다니엘 하프너가 다른 여러 선생님들과 주최한 세미나들은 나에게 진정한 행운이었다. 특히 17세에서 21세 사이에 철저하고 차별화되며 무엇보다도 독립적인 방식으로 인지학을 접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나는 인지학과 나의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인지학은 내 의학 공부에 기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율리아(25) - 심리학 및 의학 학생

"하프너 선생님을 통해 인지학을 더 깊이 알 수 있게 되어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그는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인식과 서로간의 연결성을 개괄하여 그 아름다움과 진실을 경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인지학적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는 능력이 있다. 그는 단순히 기억으로부터 아이디어를 중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새롭게 그것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와 함께 생각들을 따라가는 학생은 점진적으로 스스로도 생각하기 시작한다. 엄청난 양의 지식과 정확한 이해력을 겸비한 그는 젊은이들에게 훌륭한 스승이 될 것이다.“

파울라 키퍼(28) - 보벤빌의 사회 삼중 연구 프로그램 학생

"발도르프 학교에 12년을 다니고 나니 인지학은 낯선 말이 되었다. 학교를 설립한 루돌프 슈타이너도, 내 세계관은 대체로 물질주의적이었다.

친구가 다니엘 하프너의 '관념의 역사' 세미나에 나를 끌고 갔을 때 나는 회의적이었다. 식사전 기도와 노래에 나는 놀랐고, 다른 젊은이들은 이미 서로 친밀해 보였다. 그 뒤로 몇 년 동안 다니엘 하프너와 함께 많은 세미나에 참석하고, 결국 그의 연출로 첫번째 신비극을 공부하고 공연까지 하도록 만든 것은 그의 실질적이고 인간적인 설득력 때문이었다. 이렇게 명료한 사고와 더불어 동등한 수준의 인간성을 가진 사람을 나는 그 전까지 만난 적이 없었다.

다니엘 하프너와 함께 참석할 수 있었던 인지학의 다양한 주제들에 대한 많은 세미나 덕에 최근 몇 년 동안 인지학은 나의 주요한 주제가 되었다. 발도르프 교사가 되고 싶다는 열망이 내 배움과 일의 원동력이 될 정도가 되었으니 말이다. 인지학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으면 지금 확실한 대답을 할 수는 없지만, 인지학이 무엇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강한 인상을 가지게 되었다. 이는 상당 부분 다니엘 하프너 덕분이다.“

야스퍼 폴라노(25) - 유치원 교사이자 알프터의 발도르프 교육 학생

"인지학 입문에 대한 하프너 선생님의 세미나를 통해 (당시 여전히 확고한 유물론자였고 인지학에 대해 비판적이었던) 나는 인지학을 처음 접하게 되었다. 그의 카리스마 덕분에 그는 인지학을 대표하는 최고의 인물이자, 내가 아는 모든 사람 중에서 인지학과 문화 일반에 대해 가장 포괄적이고 동시에 가장 정확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다.“

시몬 되르너(25) - 로슈톡의 철학 및 역사학 학생

"하프너 선생님과 진행했던 실질적 내용 작업은 내 교육 업무에서 항상 돌아보게 되는 기본 작업이다. 그것은 발도르프 교육에 매우 중요한 인간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고 확장시킨다. 음악 교사로 일하기 전에도 그리고 교사가 되고 나서도 나는 세미나들에 참여했다. 두 경우 모두(공부할 때와 가르칠 때)에서 하프너 선생님이 제공한 인지학의 심화와 실용적인 접근은 단지 풍요로운 경험일 뿐 아니라 필수불가결하게 느껴진다.“

파비엔 부흐뵐러(31) - 뤼벡 자유 발도르프학교 음악 교사

"내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세 가지가 있다. 그중 하나는 인지학에 대한 하프너 선생님의 세미나들과 강의들이다. 그것들이 내 인생 전체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나는 확신한다.

하프너 선생님에게는 그가 함께하는 젊은이들의 자유가 신성한 것이지만, 본인은 청년들이 그를 필요로 할 때 언제나 기꺼이 조언을 해줄 수 있기를 바란다. 세미나를 통해 그는 청년들을 서로 연결한다. 청년들은 가치있고 심오하고 가장 아름다운 순간들을 함께 만들고 경험한다. 그렇게 해서 나는 평생동안 의지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들을 발견하게 되었다.

우리 문명의 외적, 내적 삶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이미 존재하는 인지학 기관들은 내면의 힘을 잃어가고 있다(내가 보기에 그렇다). 인지학이 인류에게 줄 수 있는 것을 새로운 힘으로 살아있게 할 사람들과 지역들이 필요하다. 따라서 하프너 선생님을 통해서, 그와 함께 인지학을 공부하는 것은 시대의 요구에 기반한 것으로 보인다."

에언지 바시너(27) - 오이뤼트메움 슈투트가르트의 유리드미 학생

"나는 2018년부터 다니엘 하프너와 함께 미스터리 드라마 작업을 시작으로 다른 인지학적 주제들에 대해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다. 그는 훌륭한 연사이자, 현학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주 훌륭한 교육자이다. 그러한 점과 더불어 나는 그의 열정, 개방성, 다른 사람에 대한 편견없음을 정말 높이 평가한다.

2020년 뵘블링엔에서 30여명의 다른 젊은이들과 함께 '여름 예술 아카데미'로 진행한 루돌프 슈타이너의 첫번째 신비극 작업은 내 인지학 공부의 가장 중요한 경험 중 하나였다. 그곳에서 우리는 매일 아침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치유 유리드미, 함께 건물 관리하기, 그룹 및 개별 언어조형, 모든 형태의 예술, 저녁에는 신비극을 공부하는 등, 책에서나 읽었던 것을 실제로 살았다.... 나에게서 이미 "알고는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었던 모든 것에 대한 진정한 심화였다. 인지학이 미래에도 적합하도록 인지학을 통해서 영적인 것에 대한 진정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오늘날 인지학자들에 주어진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한다. 이런 의미에서 나는 미래 세대가 인지학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젊은이들이 이런 공부의 기회를 가지게 된다면 정말 기쁠 것 같다.

나는 현재 언어조형을 배우고 있는데, 이것을 위한 씨앗이 신비극 작업에서 심어진 것 같고, 이 방향으로 더 많은 프로젝트를 해보고 싶다."

2000년 아르헨티나에서 태어난 이사벨 쇼투리안-베커는 18세에 인지학을 공부하기 위해 독일로 이민을 왔다. 슈투트가르트 신학교에서 인지학 신학을 공부했고(2018-2021), 기독교 공동체와 인지학을 위한 봉사 업무, 두 아이의 어머니, 도르나흐와 슈투트가르트에서 언어 조형 교육을 받고 있다.

"다니엘 하프너는 첫 만남에서 상대방이 인생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함께 시간을 보내고 나서 어떤 결실을 맺을 수 있는지 알아보는 사람이다. 2023년 여름에 두 번째 신비극(루돌프 슈타이너)을 함께 연습하면서 나는 내가 무엇을 줄 수 있고 얼마나 그렇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의 감각을 경험했다. 함께 작업할 때 그에게서 받은 제안들을 나는 놀라울 정도로 내 연습 과정과 잘 결합시킬 수 있었다. 나는 다니엘 하프너와 만나게 되어 아주 기쁘다."

칼 하르트만(26), 카셀 발도르프 교육 연수생

"다니엘 하프너는 괴테식 사상가이자 학자, 예술가, 인간으로서 나에게 훌륭한 롤모델이다! 이제까지 나는 그의 인지학 세미나들과 함께 가장 최근의 5주간의 신비극 프로젝트를 통해 그에게서 배우고 그를 경험할 수 있었다. 20개 이상의 배역이 있는 5시간짜리 연극공연은 오직 그의 뛰어난 예술적 능력과 인지학을 바탕으로 소통하는 그의 재능 덕분에 실현될 수 있었다.... 동시에 그는 참가자들의 진화하는 사회적 유기적 관계에 가장 큰 사랑으로 동행하였고, 위기 상황을 보살피고 전환시킬 수 있었다. 나의 깊은 존경과 신뢰의 마음으로, 우리 인류의 위대한 벗을 부른다, 다니엘 하프너!

베네딕트 메서, 오이뤼트메움 슈투트가르트의 유리드미 학생

"현재 고등 교육의 환경에서는 삶과 관련된 콘텐츠도, 인간성도 찾아볼 수 없다. 젊은 사람으로서 바로 그것이 내가 찾고 있는 것이다. 나와 세상과 관련이 있고, 인간적인 방식으로 전달되어 내가 받아들일 수 있고 내 안에서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실제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로운 영적 삶을 갈망하는 젊은이들에게 인지학적 기초 과정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마르타 게르트너(21) - 보벤빌의 사회 삼중 연구 프로그램 학생

읽는 것에 관해서는 게으른 10대였던 나에게 다니엘 하프너가 인지학을 소개하면서 함께 읽었던 슈타이너의 기본 저작들이 엄청나게 유익했다. 삶, 예술에 대한 이해, 진화와 같은 근본적인 질문들에 대해 인지학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느끼게 해 주었고, 더 많은 것을 읽고 스스로 연구하도록 동기를 부여했다. 세미나에서 진행된 진지하면서도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는 토론은 인지학을 대중에게 옹호할 가치가 있는 학문으로 인식하도록 도왔다.

요나스 뤼박(25) - 보벤빌의 사회 삼중 연구 프로그램 학생

"인지학 기초 과정(슈투트가르트 신학교의 직업 오리엔테이션 학기)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으로서 나는 하프너 씨의 새로운 계획이 매우 가치있다고 생각한다. 내가 보기에, 많은 젊은이들의 관심을 끌었던 신비극 공연과 세미나 개최와 같은 프로젝트는 그를 잘 대변해준다. 내가 직접 그에게서 더 많은 것을 배울 기회가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아쉽다. 지금까지의 그의 노력으로 볼 때, 그에게는 인지학적 주제들로 젊은이들의 열정을 일깨우는 상당한 능력이 있음이 분명히 보인다 :)"

요나탄 우르하임(24) - 만하임의 경제학 및 철학 학생

"개인적으로 루돌프 슈타이너의 '자연의 9가지 분위기'를 주제로 다니엘 하프너와 함께 회화 세미나를 진행한 목지영과의 만남이 매우 큰 도움이 되었다. 색에서 형태가 비롯되는 문제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게 된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이것은 오터스베르크 사회 예술 학교에서 미술 치료학을 공부하는 나에게 귀중한 기초가 되었다. 그곳에서 나는 이 주제를 더 깊이 탐구할 수 있고, 목지영의 다른 세미나에도 참석해 오고 있다. 이렇게 해서 인지학과 연결되는 개인의 길이 열리게 된다. 하프너 선생님은 인지학의 다양한 분야를 진지하고 깊이있게 소개하여 인지학에 대한 자신만의 접근방식을 찾을 수 있게 한다."

지나 비찌히(27), 오터스베르크의 미술 치료 학생